



연중 제11주일(6월 16일)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마르 4,26-34)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가운데 키가 큰 나무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고, 왼쪽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다. 예수님은 붉은 자주색 히마티온과 푸른색 키톤을 입고, 오른손을 들어 나무를 가리킴과 동시에 축복의 동작을 취하고 계신다. 왼손에는 가르침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머리 뒤의 후광 안에는 십자가형이 있고, 그 세 모서리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그리스 문자 “Ο Ω Ν(오 온)”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하느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생명의 원천이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생명임을 의미한다.

작가 미상 | 목판에 에그 템페라, 산타 마리아 수도원, 이탈리아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 주님, 저희를 주님 가르침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르코 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26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27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삭에 낱알이 영근다. 29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30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31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32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3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34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마르 4,26-27)

주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과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마르 4,32)

내가 드리운 신앙의 그늘 아래 어떠한 사람들이 쉬어가며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씨앗을 뿌리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 씨앗은 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 양분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와 말씀의 실천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실천이 그 씨앗을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해줍니다. 이런 모습은 습관입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익혀온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언제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었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무럭무럭 키운 나무 밑에는 큰 그늘이 지워집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쉬어가게 하는 휴식처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신앙의 삶으

로 만들어 놓은 신앙의 그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쉬어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